濟州島硏究 제50집
2018. 8. pp.181~225.

제주정체성으로써 '제주정신'에 대한 연구 성과와 제주문화문법

강봉수*

국문요약

이 글은 '제주정신'에 관한 연구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제주정체성의 재정립을 위한 토대로 문화문법의 개념을 제안했다. 선행연구들은 '제주정신'으로 근면과 즉냥정신, 자립과 자존, 강인불패, 수분지족, 수눌음 정신 등을 주장했다. 선행연구들은 배타성과 열등의식 등을 지적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정신을 강조하여 다룬 한계가 있다. 또한 삼무정신과 해민정신처럼 다분히 의식개혁운동 차원에서 설정된 정신도 있었다. 가장 큰 결점은 산출된 '제주정신'들이 제주인의 일면을 드러내 주는 것들이었다고 하더라도 문화심층에서 작동하는 문화문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이것들은 대체로 특정한 문화행태들에서 찾아낸 의식현상이다. 문화문법은 문화행태나 의식현상보다 더 깊은 층위에서 작동한다. 이를 찾아내야 하고, 그것이야말로 정체성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필자는 제주문화문법으로 평등성, 현세성, 합리성(실용성), 온정성(호혜성), 묘합성(융합성)을 제안했고, 선행연구들이 찾아낸 '제주정신'들도 이러한 문화문법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주제어 : 제주정체성, 제주정신, 제주문화문법, 평등성, 현세성, 합리성(실용성), 온정성(호혜성), 묘합성(융합성)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Ⅰ. 서론

정체성이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으로서 자기 동일성, 연속성 내지는 지속적인 자아감이다. 자아정체성은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관적 측면은 개인적 정체성(personal identity)이고, 객관적 측면은 심리사회적 정체성(psychosocial identity)이다. 심리사회적 정체성은 곧 집단정체성을 의미하는바 민족, 국가, 지역, 계급, 성 정체성 등이 그것이다. 정체성은 각자의 개인적 정체성과 함께 집단적 정체성이 자아정체성으로 수렴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번 형성된 자아정체성은 연속성, 단일성, 독자성, 불변성을 추구하며 계속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과 경험에 직면할 때, 정체성의 위기를 겪을 수 있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아정체성을 재구성하게 된다. 특히 집단정체성의 경우 일정한 역사적 시점에서의 급격한 사회변동, 권력관계와 지배담론 및 실천에 의해 끊임없이 구성되고 해체되며 재구성된다. 이러한 정체성의 형성과 발달은 공동생활과 각종 사회화기관의 교육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정치권력의 의도에 따라 변화하고 재구성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주체가 적극적일수록 집단정체성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새로운 상징을 등장시키거나 이념적 구성물을 제시하기도 한다(조성윤, 1998: 272).

제주정체성은 지역정체성이고 문화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지역정체성으로서 제주정체성은 제주지역에 대한 소속감이고 일체감이며, 문화정체성으로서 제주정체성은 제주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겪어 온 생활경험과 생활방식에 토대하여 형성된 고유한 자질 또는 특유한

고유항(固有項)이다(김항원, 1990: 18; 이규태, 1987: 21). 제주정체성은 우선 제주인이라는 소속감을 갖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제주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현재 제주에 살면서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이다. 그러나 소속감을 넘어 일체감을 가지려면 제주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일구어온 생활양식과 문화에 대해 인지하고 공감할 때 가능한 것이다. 제주를 사랑하고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문화정체성의 형성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1)]

결국 제주정체성은 제주인들 각자의 개인적 정체성과 함께 집단적 정체성이 자아정체성으로 수렴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제주라는 지역에 소속된 일원이라는 일체감이며, 제주만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에 대한 인지(認知)와 공감(共感)을 통하여 그 바탕에 놓여 있는 고유한 자질 혹은 고유항을 습득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정체성을 규정짓는 제주인의 고유한 자질 혹은 제주문화의 고유항은 무엇인가? 제주인들은 그러한 정체성을 간직하여왔는가? 이 글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돌아보려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제주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나는 제주문화의 고유항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주인의 고유한 자질인 이른바 '제주정신'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제주문화의 고유항에 대한 인식과 공감의 정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추정해보려는 연구이다. 이 중 선구를 이룬 연구는 전자이다.

1) 여기서 제주문화정체성으로서 긴 세월동안 삶을 영위하면서 형성되어온 제주인의 고유한 자질이나 제주문화의 특유한 고유항은 시기적으로 볼 때 늦어도 20세기 중·후반기까지 형성된 것들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1970대 이후에 제주는 산업화시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개발되고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후자의 연구를 했던 자들은 전자의 연구에서 제안된 이른바 '제주정신'들에 대한 인식과 공감의 정도를 묻는 내용을 설문에 포함하기도 하였다. 이 글은 지면의 제약 상 전자의 연구 성과를 돌아보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러나 어떤 국가나 민족, 지역사회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정체성'의 문제가 제기될 때는 그만큼 해당 주체가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이다. 최근 제주사회에서 '제주다움'을 운위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정체성 교육을 구상하는[2]것도 제주정체성에 대한 위기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긴다. 지난 세기말부터 불어온 세계화에 대한 응전의 전략으로써 제주가 채택해온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한편으로 제주의 개발과 발전을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무분별한 난개발로 제주다움이 사라지고 제주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한 측면도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정체성 재정립의 과제가 등장하고 있는 점도 이 글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 필자는 제주정체성 재정립의 토대로 제주문화문법의 개념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Ⅱ. '제주정신'의 연구 성과와 한계

제주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대표적인 연구들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① 김종업 외(1979), 『탐라정신탐구세미나』,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② 김영돈 외(1983), 『제주도민의 삼무정신』, 제주도.

2) 이 글은 새로운 논의이기보다는 필자 등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강봉수, 공동연구원 김태호·강정식·하명실·김대영),『제주정체성의 정립 및 교육영역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18. 2. 28) 참조. 이 글은 이 보고서에서 관련부분을 가져와 깁고 보탠 것이다.

③ 송성대(1996), 『제주인의 해민정신』, 제주문화.
④ 김항원(1990),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⑤ 김항원 외(1996),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 정립』, 한국방송공사 제주방송총국·제주대학교동아시아연구소.
⑥ 윤용택(2014). 「주 생활문화 의식과 정체성」, 『제주 생활문화 100년』, 제주문화원.

①~③은 제주문화의 고유항의 분석에 바탕을 두고 제주인의 고유한 자질인 '제주정신'에 관한 연구이고, ④~⑥은 제주문화의 고유항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과 공감의 정도를 설문을 통하여 조사한 연구이다. 이외에도 신행철(1998), 유철인(1995) 등의 연구들도 있다. 이 글은 전자의 연구들을 돌아보는 것에 초점을 두기로 하고, 후자의 연구들은 보조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사실 이들 연구보다 일찍이 제주인의 정체성으로 '제주정신'을 언급했던 이는 석주명과 진성기인 것 같다. **석주명**은 1960년대 말에 출간된 저서 『제주도 수필』에서 제주도의 지역성을 삼다(三多)와 삼무(三無)로 전제하면서 제주인의 의식 혹은 정신에 대하여 다음처럼 언급한 바 있다. "장점으로는 육지인에 비하여 **기개(氣槪)**가 부(富)하고 **근검질실(勤儉質實)**의 미풍이 있어서 경제사상이 발달하고 **의뢰심(依賴心)이 없고 자영자족(自營自足)**을 존중하는 풍(風)이 강한 일면, 단점으로는 **시의심(猜疑心)**이 강하고 **배타성(排他性)**이 농후하여 투서(投書) 같은 일이 심다하여 공존공영의 정신이 적다."(석주명, 1968; 여기서는 신행철, 1998: 86 재인용).

또한 일찍이 **진성기**는 제주를 삼다(바람, 돌, 여자 많음), 삼무(도둑, 거지, 대문 없음), 삼보(언어, 식물, 바다자원)의 섬으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환경이 특유의 생활문화와 **신뢰, 자립, 평화정신**을 길러주었고, 제주인들은 자연과 투쟁, 역사적 시련,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고 순응하고

반항하면서 **분짓(分家, 자립)정신, 수눌음(상부상조)정신, 즈냥(근면절약)정신**이라는 제주정신을 창출해왔다고 본 바 있다(진성기, 1962, 1966; 여기서는 윤용택, 2014: 828 재인용).

석주명은 외부인의 시각에서 제주인을 바라본 것이라면, 진성기는 내부인의 시각에서 제주정신을 탐색한 것이다. 두 사람의 관점은 이후 제주정신의 실체를 규명하는 연구자들에게 단초를 제공하였다. 이제 위에 분석대상으로 가져온 연구 성과들을 돌아보기로 하자.

1. '제주정신'의 연구 성과와 담론 분석

1) 탐라정신 세미나에서 제안된 '제주정신'

먼저, 김종업 외((1979)의 『탐라정신탐구세미나』에서 제안된 제주정신을 살펴보자. 이 세미나(1979. 10. 19)는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대학탐라연구소가 주관하였다. 발표자, 발표제목, 제안된 제주정신을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탐라정신세미나(1979)에서 제안된 '제주정신'

발표자	발표제목	제 주 정 신
김종업	역사적 측면에서 본 탐라정신	● 강인불패의 정신 ● 근검, 절약의 정신 ● 불굴불효의 감투정신 ● 자율, 자립, 자위의 정신
김인제	윤리적 가치관 측면에서 본 탐라정신	● 자연적 인자(因子) : 강인불굴의 정신 ● 사회적 인자(因子) : 삼무정신 – 근면, 자주, 개척 – 검소, 자립, 인내 – 협동, 성실, 화목 ● 인문적 인자(因子) : 선비정신 – 숭인(崇仁) 정신 – 숭례(崇禮) 정신 – 숭조(崇祖) 정신

현용준	민속을 통해서 본 탐라정신	• 긍정적 측면 : 근면, 검소, 자주, 수분(守分), 평화애호 • 부정적 측면 : 공리성, 열등의식, 배타의식
강경준	풍토적 측면에서 본 탐라정신	• 자립, 강인, 진취, 실용, 신용, 인정
김영돈	민요를 통해서 본 탐라정신	• 인고, 불패의 정신 • 자강(自彊), 실행의 정신
고성준	자위적 측면에서 본 탐라정신	• 자주정신, 자위정신, • 독립정신
양중해	문화적 측면에서 본 탐라정신	• 근면, 자조 / • 검소, 절약 • 협동, 상조 / • 강인, 진취 • 숭조, 선비기질

<표 1>에서 보듯이, 탐라정신세미나에서는 그 타당성을 떠나 제주정신이라 할 만한 것들이 모두 나왔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제주정신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후에도 거의 없었던 일이다. 7명의 학자가 주장한 제주정신 중에는 서로 겹치는 것들도 있다. 긍정적 측면에서 **강인불패(불굴)의 정신, 근검·절약·수분(守分)의 정신, 자립·자위의 정신**, 부정적 측면에서(현용준만 주장했지만) **열등의식, 배타심**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5가지의 정신은 앞서 진성기와 석주명의 주장과도 겹치는 면이 있고, 다른 학자들도 공감하는 정신들인 것 같다. 예컨대, 신행철은 의식상에서 본 제주정체성으로 근검·소박한 생활태도와 자립정신, 진취적 기상, 수분지족(守分知足)의 경향과 평형(평등)의식, 배타성 등을 들었다(신행철, 1980; 1996, 여기서는 신행철 외, 1998; 299-301). 가장 최근에는 윤용택이 제주정신으로 **자연외경, 자연순응, 자원순환, 소박실용, 상부상조, 자립공존 정신**을 든 것도 표현은 다르지만 여기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여긴다(윤용택, 2010, 여기서는 2014: 828 재인용).

2) 제주정신으로서 '삼무정신'과 'ᄌᆞ냥정신'

일찍이 석주명이 언급하였고 위의 탐라정신세미나에서 김인제가 제주정신의 하나로 **'삼무정신'**(三無精神)을 주장하였지만, 이를 제주정신의 실체로 제안한 연구는 김영돈 외(1987)의 「제주도민의 삼무정신」이다. 이 연구는 제주도의 용역의뢰에 따라 제주대학탐라연구소가 수행한 것인데, 여기서 제안된 제주정신은 아래처럼 요약할 수 있다.

- ●도무(盜無) : 정의, 정직, 순박, 성실, 질서, 자강, 수분(守分), 선비기질 등
- ●걸무(乞無) : 자주(자립, 自辯, 자존), 자조(자족), 근검(근면, 검소), 강인, 복지 등
- ●문무(門無) : 신뢰(신의), 협동, 평화(인류애) 등

'삼무정신'과 함께 제주정신으로 주장되어 온 것이 **'ᄌᆞ냥정신'**이다. 예컨대 **홍순만**은 「제주인의 정신」 이라는 글에서 제주의 자연적 요인과 역사적 요인을 고려할 때, "제주정신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은 'ᄌᆞ냥정신'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홍순만, 2002: 23). 그는 'ᄌᆞ냥정신'을 단순히 비축정신, 절약정신 또는 재난극복정신으로만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의 개념 속에는 내일을 대비하고 재난을 대비하며 그를 극복해 나가려는 복합적 의미가 포함되고 그런 의지가 표현된 말이라고 여긴다. 또한 그는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자인 불패의 정신'이나 '강인한 자립정신', 또는 '삼무정신' 등도 제주정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이들 모두가 제주정신을 어떤 측면, 어떤 시각에서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정신의 실체로서 '삼무정신'과 'ᄌᆞ냥정신'에 대해서는 비판적 관점과 논란이 있어왔다. 비판적 관점의 대표적인 주장자로는 이근, 송성대, 조성윤 등이 있다. 먼저, **이근**(李根)은 「삼무정신은 제주정신이 될 수 없다」 는 글을 통하여 "삼무정신은 일종의 의식현

상이지 정신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삼무는 제주도민의 자각과 능동적 주체성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 생존본능의 의지적 적응이며, 주체적 목적적 자각이 아닌 경험적 수동적으로 나타난 의식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위의 '삼무정신'에 열거된 15개의 덕목은 하나의 의식일 수는 있지만 정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정신은 어디까지나 하나이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강인한 자립정신**이야말로 제주정신으로 응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홍순만, 2002: 21에서 재인용).

송성대는 다른 각도에서 '삼무정신'을 비판한다. 그에 의하면, "1937년 한반도 전체의 소작농은 전 농호의 82%였던 반면 제주도는 16%에 불과했고, 이 16%에 해당하는 소작농도 엄격히 말하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경지를 임대 임차한 벵작농(竝作)이라 해야 맞다"며 "제주섬에 도둑과 거지가 없었던 것은 누구나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 "대문이 없었던 것은 맹수의 침입 우려가 적었기 때문이며 정낭은 가축을 많이 기르던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치"라고 진단한다. 따라서 "제주 섬의 삼무정신은 자작농과 가축이 많고 맹수는 적은 제주 섬의 자연환경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지, 제주인들이 타 지역민들보다 유난히 근면하거나 신뢰가 강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석주명 선생이 「제주도수필」(1968)에서 최초로 제주도의 지역성을 삼다와 삼무로 기술한 후 현대에 와서 삼다와 삼무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수사로 사용되어왔다."고 비판한다. 즉, 삼무정신은 새마을운동기 제주도지사 등 정치계에서 결집 구호로 활용되며 무리하게 제주인의 정체성을 단일화 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삼무정신은 규범이나 계율일 뿐이지 이념이나 정신이라 할 수 없다고 여긴다(송성대, 1996, 2001).

송성대와 비슷한 관점에서 **조성윤**도 '삼무정신'과 '즈냥정신'을 비판한다. 그는 "제주도의 정체성을 말해준다고 선전하던 '삼무정신',

‘즈냥정신’ 등은 조선시대 이래의 전통적인 양반 사대부의 시각을 바탕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대신 교훈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을 덧붙여 해석한 것”이라 진단한다. 즉, “이것은 크게는 ‘홍익인간’이라는 국가 수준의 정신을 모델로 각 지방에 알맞은 ‘정신’을 정해 교육 목표로 활용하라는 정부 당국자들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계속해서 그는 “‘삼무정신’과 ‘즈냥정신’은 옛 제주인의 전통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행정당국자들과 교육행정 담당자들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학교교육을 통해 전파시켜온 이념”일 뿐이었기에, “제주인의 집단 정체성을 확립해야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우면서 제시했던 ‘제주정신’의 홍보는 주로 교육 기관을 통해 이루어졌을 뿐, 제주도민들에게는 별다른 호소력을 갖지 못했다”고 진단한다. 그래서 결국 1996년 8월 도제 실시 50주년을 맞이하여 제정된 ‘도민헌장’의 ‘전문’에서도 ‘삼무정신’에 대한 언급이 빠졌던 것이라 보았다(조성윤, 1998: 274-275).

필자는 삼무정신과 즈냥정신에 대한 세 사람의 비판적 관점에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 특히 삼무정신이 제주의 환경과 문화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하더라고, 70~80년대의 새마을운동과 지역개발시대에 맞춰서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 다분히 의도적으로 제주인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기획이었다고 여긴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삼무정신을 비판했던 송성대가 지난 세기말부터 불어닥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시대를 맞아 이른바 ‘해민정신’(海民精神)을 제주정신의 실체로 규정하면서 많은 논란을 낳았다.

3) 송성대의 ‘해민정신’에 대하여

송성대는 종래의 삼무정신에 대한 연구가 역동적인 미래를 향한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규범이나 계율을 찾아낸 것에 불과하다고 전제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미래

를 위한 제주적이면서 진취적인 시대정신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제주적인 정신으로 ‘해민정신’(海民精神)을 제안하였다(송성대, 1996; 2001). 그의 주장을 몇 가지 직접 보기로 하자.

“제주 기층민들 정신이 해민정신이라는 것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제주 해민이 독창적으로 만든 목갑선인 덕판배를 타고 제주인의 세계지평을 동아시아 전역으로 넓혔던 바다의 유목민이라는 포작인과 대상선대(大商船隊)가 있었다. 이에 질세라 동아시아 각국의 바다를 마치 동네 앞바다처럼 누비고 다니면서 고달프고 괴로운 물질을 하였기에 그 대가로 현대 커리어우먼을 능가하는 자유분방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었던 제주 섬의 상징인, 제주인들이 섬기는 해녀 비바리가 있다. 그리고 그 바다사람들이 상상해 창조한 제주인의 유토피아 사상인 이어도사상이 제주인의 꿈과 희망을 잃지 않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끈질기게 이어져 온 바람, 그것도 바닷바람의 신인 영등할망이 지금도 잊지 않고 매년 ‘외눈벡이 나라’에서 찾아오고 있으며, 그래서 그 방문신을 모시는 영등굿과 해신당이 아직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 (송성대, 2001: 655).

“해민정신(海民精神: Seamanship), 즉 개체적 대동주의(個體的 大同主義, Individual Corporativism)가 제주인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자연적 언어가 되는바, 이 언어는 특수와 보편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언어임이 확인된다. (중략) 가장 제주적이면서 가장 세계적인 제주인의 개체적 대동주의(해민정신)에서의 ‘개체주의’는 균분상속제, 겹부조, 따또가족제, 듀플레스형 하우스, 수눌음(계약주의), 실력주의, 높은 이혼율, 이동생활지향, 혼성취락, 배분적 정의 실천 등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동시에 대동주의는 공동목장, 공동어장, 공동캐왓, 공동 원, 공동옹기가마, 공동샘물, 공동방아, 본향당, 뱃동료의식, 품종구휼, 할망바당, 궨당 그리고 오늘날의 컨벤션센터, 샘물공장 설립 운영, 분배적 정의 실천 등에서 뚜렷이 확인된다. 이 모두를 합치면 ‘아름다움’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송성대, 2001: 665).

“제주 선민들이 시공을 초월할 수 있도록 만든 사회 ‘삶의 이념’으로서 개체적 대동주의(Individual Corporativism), 체제이념의 계도표상으로서의

해민정신(Seamanship), 계도표상의 실천사상으로서의 자립주의(Autarkism) 등은 (중략) 제주 섬에서만 볼 수 있는 제주이즘(Chejuism)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해 둘 것은 제주선민들의 개체적 대동주의란 이념이 목적론 숭배자들이나 아니면 소위 이데올로기 시대의 정치 이데올로기처럼 애초부터 의도적으로 만들어 주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실천된 이념으로서 오늘날 재발견되어 가치를 인정받는 시간과 공간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송성대, 2001: 661).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적인 혁신자들의 정신으로서 제주인의 해민정신은 아낌없이 영웅신화를 만들어낸 제주 선인들이 오늘을 사는 그 후예들에게 모두가 '할로산또' 아래 백조일손의 권당이 되어 열린 시대의 시대정신으로 되삼아 자강불식하라는 화두로서의 훈화적 메시지요, 유산이 되는 제주정신이라 할 수 있다."(송성대, 2001: 667).

송성대의 주장은 해민정신을 제주가 지향해야할 체제이념으로 삼고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적 가치로 제주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개체적 대동주의와 자립주의를 엮어내는 것인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송성대의 해민정신에 대해 즉각 비관적 관점이 제기되었다. 특히 그의 주장이 제주도가 세계화에 대한 응전의 전략으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모색하는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더욱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예컨대, 조성윤은 송성대의 주장이 "새로운 이념적 대안을 개발하려던 도당국의 바라는 바와 맞아 떨어지는 것"이었다고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조성윤, 1998: 276-277).

(1) '해민정신'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역사 속에 나타난 해민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활동을 했으며, 어떤 정신을 갖고 있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역사 연구자들의 성과를 돌아볼 때, 송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구체적인 사실은 거의 밝혀진 바가 없다.
(2) 이 이념이 그럴듯하다고 곧바로 도당국자들이 채택해 도민헌장에 반영하고 신문, 방송을 통해 홍보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도

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합의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인사들에 의해 왜곡, 이용당할 가능성도 있다. 자칫 송 교수의 주장이 진취적인 개척정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쪽으로 해석되면 ‘과감한 개발을 하자’는 식으로 개발지상주의자들에 의해 이용당할 가능성도 있다.

(3) 해민정신은 어디까지나 정체성을 새로 형성해 나가려는 전략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고, 또 그런 정신이란 언제나 과거의 역사 속에서 가장 귀감이 되는, 바람직한 요소를 추출해내서 이를 이념적 무기로 활용하는 것이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정체성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또는 사회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솔직하게 바라보는 작업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문화적 정체성이 어떤 모습일까를 토론하는 작업과 정체성을 변화시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일단 구분되어야 한다. 특히 정체성 논의에서는 현실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부정적이고 왜곡된 모습을 동시에 드러내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조성윤의 비판은 학문적, 실천적 측면에서 뼈아픈 지적이었고, 비슷한 비판이 김현돈으로 이어졌다. 김현돈은 “환경적인 요소에서 제주도 문화의 정체성을 인과적으로 해명하려는 입장은 환경결정론이 갖는 해석상의 오류를 피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송 교수의 해민정신도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해민정신은 바다를 주요한 생존의 터전으로 삼아온 대부분의 도서지역 주민들이 가진 공통적인 정신이지 제주만의 독특한 정신이 아니라고 진단한다. 나아가 “보편적 속성을 무시하고 제주도만의 독특한 정신이라 내세운다면 ‘새마을정신’과 같이 단일한 상징가치(윤리규범)로 국가나 지역사회를 통합하려는 이데올로기적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김현돈, 2003. 여기서는 김현돈 지음, 윤용택 엮음, 2015: 250–252).

이러한 조성윤과 김현돈의 비판에 대해 송성대 교수는 『제주비평』(제2호, 2002)에서 “제주인의 정체성에 대한 쟁론의 허와 실”이라는

글을 통하여 두 교수의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하였고, 이후 언론지상 등을 통하여 다양한 논자들이 주제를 넘나드는 논쟁이 가열되기도 하였지만(제주의 소리, 2004. 1.13), 성숙한 학문적 성과의 축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주정신을 규명하는 작업이 보다 과학적인 접근을 통한 진리의 발견이 아니라 당위론적이고 이데올로기적 허구로 빠질 위험성에 대해서는 늘 경계해야 할 것이다.

2. '제주정신'에 대한 도민의식 조사연구

제주정체성 연구의 또 하나의 흐름이었던 도민의식 조사연구들에서는 제주문화의 고유항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묻는 한편, 70년 이후에 주장된 제주정신들에 대해 도민들의 의식을 묻는 질문을 포함하여 조사했다. 그 대표적인 연구결과를 돌아보자.

1) 김항원의 연구

먼저, 김항원(1990)의 『제주도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 '평등의식', 그리고 제주인의 가치관을 질문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김항원, 1990: 226-228).

1) 공동체의식의 경우, 대부분이 주민들은 가까운 이웃사람을 삼촌이나 조카라고 부르고 있으며, 주로 농촌에서는 일을 할 때 수눌어 하는 경우가 많고, 계를 들어서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45.9%) 것으로 볼 때, 더불어 살려는 공동체의식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동체의식은 제주도 출신과 타지방 출신 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동체의식에 대한 정체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농촌에 거주하고 국졸이하이며 40대 이상인 사람들이 공동체의식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평등의식의 경우, 전통적인 제주도 농촌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의식주에 거의 차이가 없는 평등사회이다. 복식의 평등, 노동의 평등 및 남녀의 평등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온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평등의식은 타지방 출신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40대 이상과 30대 이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평등사회에 대한 정체성이 비교적 높게 유지되고 있으나 주로 40대 이상에서 정체성이 더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3) 가치관에서 삼무정신과 ᄌᆞ냥정신, 강인과 검소, 자립심과 곤난극복의지 및 독립심 등에 대한 제주도 주민들의 선호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89%이상), 외지인에 대한 배타심(39.7%)은 낮으며 열등의식(9.1%)은 거의 없이 육지사람과 대등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정체성은 많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KBS제주의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의 정립』

이 연구(1996)는 한국방송공사 제주방송총국과 제주대학교동아시아연구소가 주관하여 조사한 것으로, 제주인의 의식을 정치의식, 관광 및 개발의식, 사회의식, 문화 및 생활의식 등 광범위하게 조사하였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제주정신의 유형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대학생 이상의 성인(대학생, 일반시민, 전문가 등) 687명이고, 조사 및 집필진으로는 김항원, 고성준, 김진영, 강근형이 참여하였다. 여기서는 바람직한 제주정신 정립 부분의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옮겨오기로 한다.

제주정신에 대한 평가를 보자. 흔히 긍정적 측면에서 제주정신으로 들어온 'ᄌᆞ냥정신', '책임감', '삼무정신', '독립심' 등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ᄌᆞ냥(절약)정신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63.1%)고 여기며, 책임감이 강하다는 데에 대해서도 76.7%의 긍정적 응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독립심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87.5%로 매우 높다. 그러나 삼무정신에 대해서는 이제 교과서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되었다고 여긴다(81.6%). 한편, 배타심, 열등의식, 편 가르기 등은 제주인의 부정적 측면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배타심과 관련한 조사에서 외지인에 대해 거리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45.2%,

육지 사람을 만나면 경계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33.4%로, 자기 평가적 측면에서는 배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도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나 육지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인가"라는 물음에 64.8%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아직도 배타심의 정도가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인의 능력과 관련한 자긍심은 높다. 육지사람에 비해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여기고(83.7%), 육지사람을 만나 무슨 일을 하든 당당하다고 여긴다(86.1%). 그래서 이제 제주인들에게 열등의식은 거의 없다(73.6%). 그러나 아직도 편 가르기가 남아있다고 여기는 인식(63.6%)이 있다(김항원 외, 1996: 88-91).

앞의 김항원의 연구와 KBS제주의 연구 시점은 6년 밖에 차이가 없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긍정적 제주정신에 대한 인식과 공감정도는 KBS의 연구에서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 정신에서도 공히 열등의식은 거의 없지만 배타심과 편 가르기는 남아있다고 조사되고 있다.

3) 바람직한 제주정신은 유효한가?

KBS제주의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제주정신의 유형 정립을 위해 미래의 바람직한 제주정신의 상징들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6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를 분류하여 요약한 바람직한 제주정신의 내용은 아래의 <표 2>와 같다(김항원 외, 1996: 115).

<표 2> 제주KBS 등이 조사한 바람직한 '제주정신'의 내용(1996)

상징 내용	관련 항목 또는 내용
삼무정신	삼무정신, 정낭
즈냥정신	즈냥정신, 근면, 절약, 소박, 합리적 정신
혼저 옵서예	혼저 옵서예, 또 오십시오, 또 옵서양, 감수광, 옵데강,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생활, 믿음, 친절·미소의 정신, 예절과 친절, 상냥, 미덕과 친절, 정직·신용, 인심 좋은 섬, 잘 지냄수광, 어디 감수광

수눌음 정신	수눌음, 협동정신, 상부상조, 늬영나영 정신, 나눔의 정신, 모다드렁, 혼저호게마심, 조금만 더 합시다, 호끔만 더 속읍시다, 새마을정신, 수눌음정신, 결속력, 화합과 안정
자립자주 / 자존과 주인정신	자립자주정신, 돌하르방처럼 꿋꿋하게, 강인함, 몽생이, 돌처럼 강한 정신, 자존, 제주인의 긍지를 갖고 방언을 생활화, 요망지게, 선비정신, 자부심, 주인의식, 모든 일에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처리
이어도 정신	이어도정신, 이어도 가젠허난 속암수다, 천국, 지상낙원, 불끊은 섬, 풍요로운 곳, 평화의 섬, 행복의 섬, 탐라토피아, 평안정신, 개척정신, 하면 된다는 의식
자연과 풍요	자연과 하나, 유채의 섬, 감귤,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 풍요로운 곳, 한란 또는 백록담
기타	숭조사상, 예 것을 되살리는 것

이상에서 범주화한 것을 빈도분포로 종합하면, 응답자들은 'ᄌᆞ냥정신'(31.1%), '혼저 옵서예'(22.4%), '삼무정신'(17.9%), '자립자주/자존과 주인정신'(9.4%), '수눌음정신'(9.1%), '이어도정신'(6.8%), '자연과 풍요'(2.8%) 순으로 바람직한 제주정신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김항원 외, 1996: 115-116).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바람직한 제주정신의 유형을 이념형적으로 정립하여 제시하는 바, **새수눌음정신, ᄌᆞ냥정신, 혼저 옵서예정신, 신삼무정신, 이어도 정신** 등이 그것이다(김항원 외, 1996: 120-121).

이러한 KBS제주의 연구는 비록 도민의식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당위적이고 실천적 차원에서 제주인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삼무정신, ᄌᆞ냥정신, 해민정신 등에 향했던 비판적 관점이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신이나 가치의 필요성을 도민들에게 묻는다면 대체로 부정보다는 긍정적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이다. 실제

강봉수 외(2018)는 KBS제주의 제안을 주목하여 도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3] 설문에 응한 조사대상자들은 삼무정신(3.84), 즈냥정신(3.78), 수눌음정신(3.80), 혼저옵서예정신(3.84), 이어도정신(3.72), 자립과 자존정신(3.95) 등을 제주인들이 지켜나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높은 긍정적 대답을 보여주었다(강봉수 외, 2018: 103).

3. '제주정신' 연구의 한계

제주의 역사, 민속, 그리고 문화 등 제주문화의 고유항의 분석을 통해 '제주정신'을 찾아낸 점은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제주정신'의 대표적인 것들로 근면과 즈냥정신, 자립과 자존정신, 강인불패의 정신, 수분지족의 정신, 상부상조의 수눌음 정신 등 연구자간 서로 겹치고 도민들이 공감하는 정신들도 있다.

그러나 제주인의 배타성과 열등의식 등을 지적하는 연구도 없지 않지만, 그동안 산출해낸 '제주정신'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다룬 점은 한계이다. 또한 삼무정신이나 해민정신 등은 다분히 정치적이거나 의식개혁운동 차원에서 설정된 제주정신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시대적 혹은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위적 측면에서 제주정신을 설정하고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분명히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바탕을 둔 객관적인 결과이어야 한다. 또한 그렇다고

3) 필자 등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한 『제주정체성의 정립 및 교육영역 개발』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제주정체성에 대한 도민의식조사를 하였고, 그 조사내용 중에 이러한 제주정신의 내용을 묻는 질문을 포함하였던 바 있다. 조사 시기는 2017년 12월, 조사 대상은 제주도내 초중등교사, 중등학생, 일반시민(학부모 포함) 25,000명 정도였다. 아래 (　　)안의 숫치는 5점 척도에 따른 값이다.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찾아진 제주정신들이 다른 육지부에는 없는 제주만의 것인가 하는 점도 검토되어야 한다. 얼마든지 비슷한 환경과 역사 속에서 살아온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제주에서 발견되는 정신들을 찾아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비판과 한계는 이미 지적되어왔다. 필자가 보기에 그동안 제주정신 연구의 가장 큰 결점은 설사 지금까지 산출된 모든 ‘제주정신’들이 실제 제주인의 일면을 드러내 주는 정신이었다고 하더라도 문화의 심층에서 작동하는 제주인의 사유문법 혹은 문화문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이것들은 대체로 특정한 문화행태들에서 찾아낸 의식현상이라 보이기 때문이다. 뒤에서 논하겠지만, 사유문법 혹은 문화문법은 문화형태나 의식현상보다 더 깊은 층위에서 작동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양한 현상적 문화를 가로지르는 의미의 코드이자 형태적 문화를 구조화시키는 무의식적 구조이고 패러다임이다. 필자는 이를 찾아내야 한다고 여기며, 그것이야말로 제주정체성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Ⅲ. 제주인의 문화문법과 제주정신

1. 문화문법이란 무엇인가?

문화를 보는 시각에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유형론적 관점과 맥락론적 관점)이 있다(전경수, 2001: 19). 맥락론적(현상적) 관점은 거대한 심층구조보다는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생활양태를 문화로 규정한다. 유형론적(구조적) 관점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제반 사건들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역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인간행동과 사고의 심층구조를 문화로 규정한다.

문화의 본질은 두 가지 입장을 종합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쉬르(F. de Saussure)의 언어기호학을 빌어 문화해독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김형효의 관점이 주목된다(김형효, 1994: 3-119). 소쉬르는 사회제도로서의 언어(la langue)와 개인이 개성에 따라 사용하는 말(la parole)을 구분하는데, 여기서 '말'은 시대변화와 개성에 예민하지만(通時性), '언어'는 역사와 사회변화에도 쉽사리 변치 않은 공시적(共時的) 성격을 갖는 것으로, 개인이 자기 개성에 알맞게 쓰는 '말'도 문법으로써 '언어'의 주어진 체계 내부에서의 놀이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이를 문화일반을 해독하는 방법으로 원용할 때, '말'은 특정시대에 유행한 주류문화이고, '언어'는 주류문화를 구조화시키는 **'문화문법'(cultural grammar)**에 해당한다. 여기서 전자를 **결합체적 사슬(신태그마; syntagmatic chain)**이라 부르고, 후자를 **계열체적 집합(패러다임; paradigmatic set)**이라 부르는데, 말하자면, 패러다임은 문화의 (準)불변적 요소이고, 신태그마는 시대마다 달라지는 가변적 요소이다. 따라서 문화의 본질이란 항상 패러다임과 신태그마가 서로 얽혀서 존재하는 잡종일 수밖에 없다.

결국, 문화에는 세 가지 개념적 층위가 있다. 문법(grammar) 혹은 패러다임(계열체)으로서의 문화(문화문법), 신태그마 혹은 결합체적 사슬(syntagmatic chain)로서의 문화, 그리고 계열체적 집합과 결합체적 사슬이 서로 얽혀서 존재하는 일상생활양식의 총체로서의 문화가 그것이다. 이 중 문화문법은 어떠한 조치로도 쉽사리 변하지 않는 문화의 하드웨어(hardware)와 같다. 문화문법은 한 사회의 역사를 통하여 다듬어지는 역사의 산물이지만, 고도의 추상적 구성물(abstract construction)이다. 정수복에 의하면, "문화의 저류에 위치하는 문화적 문법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위양식 속에 깊숙이 내장된 어떤 지속적 믿음과 가치관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부정과 비판을 거듭해도 쉽게 변하지 않는 매우 끈질긴 사고방식과

관습의 형태로 존재한다. 문화적 문법은 시대가 바뀌어도 쉽게 변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사의 축적물'이자 쉽게 변치 않는 '마음의 습관'이다."(정수복, 2007: 49-50). 따라서 그것은 사회변동, 혁신, 단절 등의 충격을 견뎌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와 같은 역사적 변화와 위기에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는 등 사회변동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화는 역사에서 끝없이 창조역량의 강화를 요청한다. 그렇다면 문화의 창의성이란 문화의 하드웨어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무리한 수고보다는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온 결합체와 자연스럽게 접목과 상감(象嵌)이 이루어지도록 소프트웨어(software)를 개혁하는 것이 아닐까 여긴다. 즉, 문화의 창조역량은 각자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문화의 결(문화문법)을 잘 인식하여 언제나 변하는 새로운 결합체적 사슬의 도전에 선구적으로 대처하는 '최적의 논리'를 파악함에 성립한다(김형효, 1994: 61). 원래의 문화문법과 새로운 결합체가 접목해감에 있어 그 둘 사이에 서로 결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 문화적 창조를 가져오기도 하고 문화적 병리 현상을 낳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문화문법이 지역의 정체성과 그것을 재구성하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여긴다(자세한 논의는 강봉수 외, 2018: 44-48).

자아정체성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고 발달하며, 삶의 사회 환경과 개인적 이상의 변화에 따라 위기와 재구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립된다. 개인적 정체성의 형성과 발달은 가정, 학교, 사회기관 등의 사회화와 교육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다. 지역 혹은 문화정체성의 측면에서도 예나 지금이나 교육은 문화의 전수와 창조의 통로 역할을 해왔다. 개인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정신적 유산인 문화문법을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통해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쳐 사회구성원이 되는 것이다(정수복, 2007:

51). 따라서 우리가 문제 삼는 제주정체성을 찾는 작업도 일차적으로 제주인의 문화문법을 탐색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2. 제주문화문법의 범주와 그 근거

그렇다면 문화문법은 어떻게 찾아지는가? 바다의 물결로 비유하자면 기저층은 저류를 형성한다. 바다 표면의 파도와 풍랑은 변화가 심하고 관찰이 가능하지만 바다 밑의 저류는 잘 보이지 않고 변화도 심하지 않다. 문화적 문법을 연구한다는 것은 파도가 아니라 저류를 연구하는 작업이다(정수복, 2007: 49-50). 김형효는 문화문법을 낳게 하는 조건적(conditioning) 요소로 ① 자연적·지리적 특성, ② 언어적인 특성, ③ 역사적 경험의 특성, ④ 의·식·주의 특성, ⑤ 친족구조의 특성, ⑥ 종교·신앙의 특성, ⑦ 인구학적 특성 등을 들고 있다. 물론 이들 요소들은 결정적(determinate)이라기보다는 조건적 요소들이기에 문화문법이 전혀 변화가 없는 선험적 구조물은 아니라는데 유의해야 한다(김형효, 1994: 56-57).

제주문화의 패러다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형효가 제시한 바의 문화문법을 낳은 조건적 요소들에 대해 광범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들 조건적 요소들에서 공통항으로 재생 반복하여 드러나는 심층의 의식을 탐색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인의 문화문법을 규명하는 작업은 특정한 연구자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여러 분야의 전공자들이 함께해야 가능한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제한적이나마 필자는 제주의 무속신화, 가족제도, 의·식·주의 특성 등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재해석하여 제주인의 문화문법을 거칠게나마 고찰한 바가 있다(강봉수, 2009: 1-81; 강봉수, 2014: 333-365). 여기서 필자는 제주인의 문화문법을 **평등성, 현세성, 합리성, 온정성, 묘합성** 등으로 제안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보완한 바 있다(강봉수 외, 2018: 110-132). 여기서는 연구용역에서 보고했던 결과를 가져와 보충한다.

1) '평등성'의 문화문법과 그 근거

평등성은 성별, 계급별 등의 구분 없이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려는 정신이다. 그러나 여기서 평등성은 엄격하게 근대적 의미의 평등 개념이라기보다는 비교 대상인 육지부의 문화에 대비하여 나타나는 제주인의 문화문법이다. 제주에서는 남녀차별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남성중심 혹은 큰아들 중심의 가계계승 문화가 덜했고, 반상의 계급이나 적서차별 등도 약했었다.

무속신화(일반신본풀이)에서 평등성은 두 가지로 구체화되는 데 하나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간의 평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성과 남성간의 양성평등의 지향이다. 이를 위하여, 특히 우리의 본풀이는 못가진 자와 여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아들과 장자 중심의 유교적 문법과는 달리, 막내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아들 선호의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러한 경향이 약하고, 사례가 많은 것이 아니지만 아들과 딸에 상관없이 막내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점은 명확하다.

제주의 특이한 지리적, 자연적 여건은 삶의 양식을 얻는데 힘겨운 노동을 요구하였다. 토양은 화산회토로서 돌이 많고 물이 땅속으로 쉽게 스며드는 핍수지역이라 물이 귀했고 밭작물을 재배할 수밖에 없었다. 토질은 척박하여 토지 생산성이 낮았다. 중산간 마을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힘든 밭농사 일에 목축업을 겸하여 살아야 했고, 해안가 마을 사람들도 밭농사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었기에 여자들은 해녀(잠수) 일을 하고 남자들은 어업에 종사해서 살림을 꾸려야만 했다. 그래서 제주에는 큰 부자도 드물었고 매우 가난한 사람도 드물어 대체로 평등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의 가족제도에는 장남분가의 전통이 있었고, 이러한 점은 육지부의 대가족제도와는 달리 부부중심 가족제도를 낳았다. 부부중심의 독립된 생활은 그만큼 여성, 부녀자의 자율성과 역할 참여의 증대를 가져오게 마련이다.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도 육지와는 달리 남편의 결정권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부부가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고 전한다. 또한 노동 참여에서도 여성이 하기 힘든 일이 아닌 가사활동, 밭농사일, 잠녀(해녀)일 등에 부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길흉사시의 부조에서 가족을 단위로 하지 않고 개인단위로 주고받는 것(이를 '겹부조'라 부른다)도 부인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는 예에 해당한다. 시동생과 시누이에게 경어를 사용하지 않고 친동생에게처럼 평등어를 사용하는 것도 며느리의 지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제주의 가족제도에서 가계계승과 관련하여 재산의 균분상속과 제사의 분할상속의 경향이 강했던 것도 평등성의 문화문법을 알려주는 징표이다. 장례문화에서도 부모가 돌아가면 장남이 맏상주로서 상례의 전 과정을 주관하지만 장례의 경비는 여러 상주들이 적절하게 분담하였고, 여기에는 시집간 딸들의 참여도 두드러진 측면이다. 즉 상두꾼과 문상객을 위한 장례일의 조반이나 점심을 딸과 딸의 시댁에서 담당하였다고 전한다(이하 제주의 가족제도에 대해서는 김영돈, 1966; 김혜숙, 1982, 1983, 1984, 1985, 1993, 1999; 이창기, 1987, 1988, 1991, 1992, 1995; 최재석, 1976, 1977a, 1977b, 1978a, 1978b, 1978c, 1979; 한삼인, 1999; 현용준, 1973).

제주인들이 가장 흔하게 입었던 옷은 갈옷이다. 갈옷은 제주인이면 누구나 알듯이, 삼베나 무명에 감물을 들여 제작한 옷이다. 갈옷은 노동복이고, 일 년 동안 가장 많이 입는 평상복이기도 하였다.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입었던 평상복이고 노동복이라는 점에서 평등성

의 문법을 엿볼 수 있다(이하 제주의 복식문화에 대해서는 이즈미 세이치, 김종철 옮김, 2014: 242-246; 김동욱·고부자, 1977: 215-231; 현진숙, 2014).

제주의 식생활에서 일상식은 빈부 차이 없이 거친 잡곡밥과 된장국에 채소나 장아찌를 곁들인 너무나 소박한 밥상이었다. 여기에서 평등성의 문법을 읽을 수 있다. 식사방식에서도 육지부와는 달리 일가족이 대형 밥상에 장유(長幼) 구별 없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는 점에서 평등지향적 사고를 읽을 수 있다(이하 제주 식문화에 대해서는 이츠미 세이치, 김종철 옮김, 2014; 오영주, 1999; 황혜성, 1977; 양용진, 2014).

제주도의 민가는 육지의 것과는 전혀 다른 유형이다. 제주의 민가는 집의 간살이에 따라 <외거리집>, <두거리집>, <세거리집>, <네거리집>으로 나뉜다. 그러나 집의 거리 수가 빈부차이를 뚜렷이 증거하는 것은 아니고, 식솔의 가족 수나 기능적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제주민가에서 큰 구들은 부모의 공간이고, 작은 구들은 아이들의 공간이다. 큰구들과 작은구들은 육지부의 남녀차별의 안채와 사랑채 개념과 다른 것이다. 여기에서 평등성의 문법을 읽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부들의 공간이 별도로 있었던 것도 주목된다. 챗방과 안뒤가 그것이다. 여기에서도 여성에 대한 배려와 평등성의 문법을 읽어낼 수 있겠다(이하 제주의 주거문화에 대해서는 김홍식● 김정기, 1977; 송병언, 1999; 양상호, 2014).

2) '현세성'의 문화문법과 그 근거

현세성이란 내세보다는 현세의 삶을 이상적으로 꾸려가고자 하는 정신이다. 내세는 이상적이고 평화의 세계이지만 현세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고 아귀다툼의 세계이다. 그러나 제주인들은 척박한 자연환경에 순응하며 고된 삶을 이겨내려는 현실 긍정적 태도와 함께,

자연과 신(神)에 대한 외경심을 가지고 그들에 의지하면서 현실을 이상으로 바꿔가려는 강한 현세성의 문화문법을 가지고 있었다.

무속신화에서 현세성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본풀이에서 주인공들이 활동하는 무대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상세속계(地上俗世界)외에도 옥황상제가 살고있는 천상계(天上界), 용왕이 거주하는 해양계(海洋界), '서천꽃밭', '황금산 절', '동개남 은중절'로 표현되는 신성계(神聖界)가 있다. 여기서 지상속세계는 천상계, 해양계, 신성계와는 대비된다. 전자는 혼란의 세계이고 아귀다툼의 세계인데 반해 후자는 질서의 세계요 평화의 세계이다. 그런데 본풀이의 주인공들은 전자의 세계에 살고 여기를 다스리는 신이 되고 싶어 한다. 사실 이러한 현세 지향적 사고는 저기가 아닌 지금 여기의 세계를 내세처럼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제주는 무속신앙의 뿌리가 깊다. 집안 곳곳에 신이 있고, 마을에는 마을 수호신인 본향당이 있고, 물질하는 사람들이 가는 해신당,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가는 산신당이 있었다. 그야말로 제주는 1만 8천신들의 고향이라 일컬어진다. 이는 그만큼 제주인들이 척박한 땅에서 고된 삶을 이겨내고 역설적으로 현세의 복을 빌고 이상향으로 가꾸어 가고자하는 현세성의 문법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제주의 옷인 봇뒤창옷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는 유아복이다. 봇뒤창옷은 아기가 태어난 후에 제작한다.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옷을 만든다고 부산을 떨면 숭시(凶事)난다고 믿었다. 그리고 자손이 귀한 집안에서는 무병장수한 복 있는 할머니의 삼베 속옷을 얻어와 만들어 입히거나 자손이 잘되는 집안의 옷을 빌려와서 입혔다. 이 옷은 복이 깃든 옷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도 반드시 돌려받았다. 여기에서 강한 현세성의 문법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옷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입히지 않았다. 아기가 태어나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입던 갈중이로 감싸두었다가 3일이

되어야 옷을 입혔다. 아이가 태어나 사흘이 되면 그 때야 산모와 아기는 쑥물로 목욕을 하고, 아기를 돌봐준다고 믿는 삼신할망에게 제례를 올리고 난 다음에야 아기에게 봇뒤창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이 옷은 몸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주술적 의미와 현세지향적 사고가 강하게 깃들어 있다.

현세성의 문법을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제주옷이 호상옷이다. 봇뒤창옷이 태어난 생명이 잘 자라기를 염원하는 옷이라면, 호상옷은 죽은 자를 위한 수의(壽衣)이다. 호상옷은 단순히 죽은 자에게 입히는 기능적 의미를 넘어선다. 봇뒤창옷이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 제작한다면, 호상옷은 오히려 죽기 훨씬 전에 미리 만들어둔다. 이 옷을 미리 만들어두면 시름시름 아프던 환자도 수명이 길어진다고 여겼다. 그러니까 호상옷은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기를 염원하는 한편, 저 세상에 간 이후에는 이승에서 누리지 못한 호강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동시에 깃들어 있다. 또한 옷을 아무 때나 만드는 것이 아니다. 좋은 날을 택하여 만들거나 환갑이나 손 없는 윤달에 복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만들었다. 또한 봇뒤창옷은 삼베로 제작하여 현세성의 문법을 담았지만, 호상옷은 대조적으로 최고급 재료인 명주로 만들어 현세성의 문법을 담았다.

제주의 식생활문화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떡이 발달하였다는 점이다. 제주사람들에게 떡이 주는 의미는 ‘기원(祈願)’이었다. 곡식이 넉넉하지 못했음에도 떡을 만들어야 했던 이유는 굿, 제사, 영장 등 무속신앙과 집안 대소사의 의례를 치르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특히 제례 떡과 무속의례를 위한 떡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현세성의 문법을 읽을 수 있겠다.

제주의 가옥구조에서 집안의 모든 시설과 공간에는 이곳을 관장하는 신들이 있었다. 상방은 집안 신들의 중심이다. 상방입구에 문전신

이 있고, 고팡을 관장하는 안칠성과 부엌을 관장하는 조왕신이 있다. 그래서 제사 때에도 문전제를 먼저 지내고 조왕신, 정낭신 등에도 예를 표했다. 이외에 안뒤를 주관하는 밧칠성이 있고, 주목지신, 정살지신, 눌굽지신, 울담신, 오방토신, 칙로부인, 삼신할망, 구삼실할망 등의 신이 있다. 이들은 모두 현세성의 문화문법을 알려주는 징표이다.

3) '합리성'의 문화문법과 그 근거

합리성이란 일종의 정의(正義) 지향의 사고이고 실용적 사유이기도 하다. 정의지향의 사고이기에 여기에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를 정당하게 대우하겠다는 함축이 들어있다. 인간관계에서 제반 갈등과 이해관계의 합리적 해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한다는 개인주의적 사고가 담겨져 있다. 또한 제주인들은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합리적 사유를 문법으로 가져왔다. 즉 자연에 순응하면서도 적절히 그것을 삶에 활용하는 합리성과 실용성의 문화문법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무속신화에서는 사법적 정의개념뿐만 아니라 본매본장, 수수께끼와 내기 시합 등처럼 계약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정의의 사고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탐라국의 건국신화인 삼성신화에서도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 삼형제는 활쏘기 내기를 하여 각각 다스릴 지역을 정하였다.

제주인들은 역사적으로 불의한 권력이나 외세에 대해 저항하였다. 고려 때 삼별초 항쟁(1270)에서 제주인들은 폭정과 억압으로 주민들을 괴롭히는 고려정부에 항거하여 오히려 삼별초군을 도왔고, 조선시대에는 지나친 세금징수와 폭정을 일삼던 지방정부에 항거하여 강제검의 난(1862), 방성칠의 난(1898), 이재수의 난(1901) 등이

일어났다. 이들은 모두 부정의한 권력에 대해 항거하였던 것이다. 또한 외세의 침략에 대응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해녀들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삶을 살아내야 했던 제주인들은 일찍부터 공정성의 사고와 함께 실용성의 문법을 습득해야만 했다.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지혜와 모든 일에 실용성을 따지고 인내를 감수하고 즈냥하는 정신을 기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법이 생활문화의 저변에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아들이 성숙하여 결혼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남은 물론 차남 이하까지도 분가시켰고, 부모가족과 자식이 동거하지 않았다. 분가시킬 형편이 안 되어 동거하더라도 한 집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울타리 내에 두 살림(안거리와 밖거리, 즉 안채와 바깥채)을 내어 주거를 분리할 뿐만 아니라 경작지를 나누어 따로 농사를 짓고 취사와 세탁 등 일체의 살림을 각각 독립적으로 꾸려나갔다. 부모들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자녀의 부양을 받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러한 장남분가와 부모들의 독립성, 안거리와 밖거리 생활문화에는 합리성(실용성)의 문화문법이 전형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주에서도 아들자식을 낳기 위해 축첩관행이 있었고 양자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첩과 그의 자식이라도 본부인과 그의 자식들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았고, 양자입양의 경우에도 반드시 동성의 친족에서 양자를 데려오지 않았던 것은 제주만의 평등 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문화문법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의 유아복인 봇뒤창옷은 그 재료 면에서 볼 때 매우 합리성의 문법을 담고 있다. 다른 지방에서 배냇저고리는 보통 면(綿)을 사용하였지만, 봇뒤창옷은 계절에 상관없이 삼베로 만들었다. 삼베의 효능 중에는 피부에 좋은 기능이 있다. 특히 옛날에는 물 사정이 좋지

않은 관계로 자주 깨끗이 씻을 수 없었고 피부병에 걸리기도 더 쉬웠을 것이다. 삼베는 통풍도 잘되며 피부도 튼튼하게 해준다. 할머니들의 면담을 통해서도 등 가렵지 말라고 입혔다고 전한다. 합리성(실용성)의 문화문법이 가장 잘 반영된 옷은 아무래도 갈옷이다. 갈옷의 장점으로 다음이 지적된다. 첫째, 경제적이다. 더러움이 덜 타므로 세탁 시에 꼭 비누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풀을 하거나 다른 잔손질을 할 필요가 없으며, 한 벌이면 2년 정도 입을 수 있게 질기다. 둘째, 위생적이다. 감즙은 방부제가 되어 땀 묻은 옷을 그냥 두어도 곧 썩거나 상하지 않고 썩은 냄새도 나지 않으며 통기성이 좋다. 질기기 때문에 풀이나 가시덤불 위에 다녀도 쉽게 상처를 입지 않는다. 셋째, 제작과정의 편이성이다. 옷 만드는 과정부터 기교가 필요치 않아 기초 마름질 법만 알면 누구나 쉽게 해 입을 수 있고, 바래는 과정(염색)에서 약 10일간 공정이 필요하나 문제되지 않는다. 합리성의 문법을 담은 또 하나의 제주옷이 해녀복(물옷)이다. 물질할 때 입는 노동복이면서 전문 직업복이다. 물옷은 편리함과 견고성, 실용성을 동시에 갖추어 어려운 바다에서의 노동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궁리를 하여 제작된 옷이라고 한다. 제작과정에서 실오라기 하나라도 버려지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만든 옷으로 ᄌᆞ냥정신이 오롯이 살아있는 옷이기도 하다. 해녀옷은 모두 제주의 기후나 풍토에 걸맞는 생업에 따라 생겨난 복식문화라 할 수 있다.

제주의 식생활인 일상식에서 보이는 제주 식문화의 특징을 오영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조리법이 단순하고 식품에 가능한 한 인간의 손질을 최소화한다는 점이다. 둘째, 제철에 나는 식재료에 의존하여 다양하게 이용한다. 셋째, 구황음식과 민간요법용 음식이 발달하였다. 제주인의 식생활의 역사는 한마디로 거친 환경과 싸워 식량을 얻기 위한 하나의 투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쌀밥과 고기는 주로 큰일이 있을 때나 먹을 수 있었고, 일상식의 주식은 거친

잡곡밥과 범벅 그리고 죽과 고구마였다. 이러한 특징들에서 우리는 소박하면서도 실용성을 추구하는 합리성의 문화문법을 읽어낼 수 있겠다.

제주민가는 대체로 초가집이었고 지붕을 엮는 재료는 ‘새’(띠)라는 풀을 이용하였고, 벽의 담장은 어두운 회색의 현무암이다. 이들은 육지부의 볏짚이나 흑돌담보다 단단하고 제주환경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벽담을 붙여서 비바람을 막는 축담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인들의 실용적 합리성의 문화문법을 읽을 수 있다. 제주민가의 가옥구조를 보면, 안거리를 나오면 마준 편에 밖거리가 있고, 모거리에 쇠막(외양간)과 헛간이 있고 구석 어느 편에 측간(변소)이 있고, 정지붙인 외부에는 장항굽(장독)이 있다. 또 모거리 공간들에 눌왓이 있고, 집의 어느 편에는 우영밭도 있다. 측간은 변소이지만, 여기서 돼지를 키운다. 돼지사육은 경제적 목적이기도 하지만 큰일에 추렴용일 수도 있다. 측간에서 거름이 나오고, 쇠막에서도 쇠똥을 이용한 거름이 생산된다. 취사에서 땔감이 타서 만들어진 재도 거름이고, 오줌도 모아둬서 거름으로 이용된다. 우영밭에서 식구들이 먹을 온갖 채소와 먹거리 재료가 생산된다. 여기서도 친환경적이면서 실용적 합리성의 문화문법을 읽어낼 수 있다.

4) ‘온정성(호혜성)’의 문화문법과 그 근거

온정성이란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호혜성이고 공동체주의 정신이다. 정의지향과 실용성의 합리적 문법이 개인들 간의 분리와 소외를 가져올 수 있다면, 호혜성과 온정성의 문법은 너와 나를 갈등과 분리의 관계로 보지 않고 상호 의존적이고 인간적으로 서로 따뜻하게 배려해야 하는 공동체적 관계라고 여긴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제반 갈등과 삶의 영위는 합리성과 실용성만 따져서 해결 가능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갈등을 넘어서 양보하고 서로 돕고 배려하면서 따뜻한 공동체적 온정(溫情)에 토대하여 해결

할 수 있다. 제주인들은 온정에 토대한 공동체적 정신을 강한 문화 문법으로 소유해왔다고 볼 수 있다.

무속신화에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제반 갈등과 이해 대립을 설득과 양보와 타협, 상대방에 대한 인간적 배려를 통하여 해결하는 사례들이 등장한다.

한국은 공동체적 문화전통이 강한 나라이다. 특히 산업화 이전에는 주된 삶의 양식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다. 힘든 농사일을 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협업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일찍부터 품앗이와 두레, 그리고 향약과 같은 공동체 문화가 발달하였다. 제주도 예외가 아니었고, 제주인들은 육지부와 비슷하면서도 특유한 형태의 협업과 공동체 문화를 발달시켰다. 수눌음과 접계 등이 그것이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삶의 양식을 얻기 위해 제주의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협업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조직이 생겨났다. 해녀공동체는 아직도 살아있는 전형적 사례이다. 특히 제주에서는 촌락내혼 중심의 통혼권으로 인하여 "마을 내에 매놈(완전한 남)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친척 관계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점도 더욱 친밀하게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적 삶의 전통을 만들었을 것이다.

제주 사람들은 조금만 안면이 있어도 "사돈에 팔촌으로 걸린 궨당"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한다. 이는 굳이 친척 관계가 되는지 따져서 확인해 보지 않아도, 고향 마을을 밝히고 계보를 따지다 보면 하다못해 사돈의 팔촌이라도 된다는 이야기다. 촌락내혼 중심의 통혼권은 같은 마을이나 이웃 마을에 혈족과 인척의 중첩을 가져오는데, 궨당은 지연과 혈연에 중복이 생기면서 모두가 친척이라는 의미로서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다(김혜숙,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궨당'항). 제주에서 이웃 혹은 부락 내 어른들을 삼촌으로 호칭하고, 큰 일이 생겼을

때나 농사일에서 자기 집안일처럼 서로 나서서 돕는 이른바 '수눌음'의 관행도 이러한 온정성(공동체주의)의 문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한국복식의 기본형인 저고리, 바지, 치마 등은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형태와 제작 방식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뿐 그냥 존속해 오고 있다. 이 점은 제주라고 예외가 아니다. 오늘날 한복은 명절이나 결혼식 등에서 입는 의례복 정도로 전통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한복은 서양의 복식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서양의 복식이 직선적이라면 동양과 한국의 복식은 곡선적이다. 이는 문화문법으로 볼 때, 서양의 복식이 분석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대변한다면, 한복의 곡선미는 온정적인 사고가 깃들어 있는 것으로 대비시킬 수 있다. 이 점에서 제주의 복식에도 온정성의 문법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제주의 식생활에서 소박한 일상식과는 달리, 이른바 '잘먹는' 특식일이 있었는데, 수눌어 공동노동을 한 날이나 장마철 어느 날을 선택하여 산듸(밭벼)로 곤밥을 짓고 돼지를 추렴하고 아껴둔 바닷고기 등으로 요리를 하여 즐거운 저녁상을 차렸다. 특히 제사나 명절날은 한층 더 좋은 음식을 준비한다. 그리고 특식일에 먹는 음식은 반드시 이웃과 나누어 먹는 공식(共食) 문화, 즉 반 태움의 문화가 발달하였다. 여기에서 공동체주의와 온정성의 문화문법을 엿볼 수 있다.

제주의 전통마을은 공간구성 자체가 온정성이 넘치는 공동체였다. 제주민가를 중심으로 마을구조를 보면, 정낭(이문간)을 넘어 집밖으로 나오면 올레이다. 올레는 사적인 공간이지만 같은 올레를 쓰는 이웃에게 제공되는 공적인 것이기도 하였다. 한질(큰길)까지 이어진 올레를 따라 이웃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한질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동네가 구성된다. 동네마다 공동으로 쓰이는 돌방아가 있고, 마을공동의 사람 먹는 물(우물인 통물 혹은 용천수인 물통)과 소가 먹는 물 등의 연못이 있다. 동네 어귀에 냇가나 쇠먹는 물에서 아낙들이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빨래를 한다. 물허벅을

지고 먹을 물을 길어온다. 물론 바닷가 마을에는 식수가 바닷가에 있고, 남녀용 목욕공간도 있다. 마을에서 고개를 들어 주변을 올려다보면 오름이 보이고, 오름을 넘어 한라산이 보인다. 그리고 내려다보면 바다의 수평선이 보인다. 마을 주거구성과 주변환경이 모두 옹기종기 온정성이 넘치는 공동체이다.

제주인들은 궨당문화와 공동체적 생활문화에 토대한 호혜성과 온정성이 강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체적 온정성을 깨려는 외부세력에 대해 항거하는 저항과 배타적 의식도 낳았던 것이다. 고려시대에 제주를 지배한 몽고군보다는 오히려 핍박을 일삼던 중앙정부군에 대한 항쟁, 조선시대의 여러 민중항쟁, 일제강점기 해녀 중심의 항일운동, 4·3 항쟁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또한 고려시대 몽고지배 이래 제주에는 계속하여 국내외 이주민들이 들어와 정착하였다. 이들이 들어온 처음에 제주인들이 그들에게 배타적 태도를 보였던 것도 공동체적 온정성의 측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5) '묘합성(융합성)'의 문화문법과 그 근거

묘합성(妙合性)이란 전혀 성격이 다른 요소들이 기가 막히게 공존을 허락하는 문화문법으로, 다양한 문화와 사고를 허용하고 통합시키려는 융합성이고 조화정신이다. 제주는 지리적으로 해양문화와 대륙문화의 중간지대에 놓여있다. 그래서 일찍부터 제주에는 두 문화가 유입되고 제주의 독특한 문화와 서로 교류하여 습합하고 상감(象嵌)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융합성 혹은 묘합성의 문화문법이 자리잡아왔을 것이다. 이것은 앞의 개인주의적 합리성과 공동체주의적 온정성을 통섭시키는 문화문법이기도 하다.

제주의 본풀이에서는 무속신만이 아니라 유교적 인칭도 등장하고 불가의 부처나 승려 등도 등장한다. 한국의 불교사찰에 산신각, 칠성각, 삼성각 등이 있어 무속(혹은 도교)과의 습합 현상을 보여주는데,

제주 또한 예외가 아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유교식 조상제사에서 무속적인 문전제와 조왕신께 제례를 하는 지역이 있고, 마을제에서도 유교식 포제와 무속적 당굿을 동시에 진행하는 곳도 많다. 심지어 포제단에는 무속신이 동거하고 있다.

제주인들은 일찍부터 다문화를 인정하고 융합시키는 묘합성(융합성)의 문화문법이 있었기에 몽고지배기 이래 국내외 이주민들이 들어와도 처음에는 배타적 감정과 저항의식이 있었겠지만 결국 그들과 화합하고 동화하면서 더불어 사는 구성원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제주의 친족제도는 동성집단 중심의 육지부와는 달리 친가·외가·처가를 두루 포함하는 권당문화였다. 이는 부락내혼(혹은 인근부락)이 많았기 때문이다. 부락내혼(혹은 인근부락)이 제주에만 있는 양식은 아니지만, 동일부락이나 인접부락 내혼비율이 높다는 것은 부계친과 외가친 및 처가친이 가까이에서 함께 사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과의 사회관계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부계친만의 결속력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문중조직도 발달할 수가 없었다. 대신 상대적으로, 외가친족이나 처가친족과의 관계는 육지의 전통적인 가족에 비해 훨씬 긴밀하였다. 예컨대, 결혼시의 상객구성에서 외가친족 1~2명이 항상 부계친과 함께 참여하고, 장례시에도 망인의 사돈이 반드시 죽을 쑤어와 상주가족이 먹도록 하였으며, 장례일에 상두꾼들에게 나누어줄 떡(이른바 '고적'이라 부른다.)을 부계친뿐만 아니라 외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 등의 외가와 처가친척들이 해왔다. 이처럼 폭넓고 느슨한 친족구조에서 혈연중심의 공동체를 넘어선 묘합성(합리적인 배려공동체)의 문법을 볼 수 있겠다.

제주의 일복인 갈옷은 일할 때 입는 옷이지만 평상복이고 외출복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묘합성의 문화문법을 담고 있는 옷이기도 하다. 그리고 아낙네들이 모자처럼 쓰고 다니는 머리수건에도 묘합성

의 문법이 깃들어 있다. 머리수건은 일할 때, 땀닦을 때 이용하지만, 예의용으로 쓰는 모자의 기능도 했다. 묘합성의 문법을 담고 있는 제주옷으로 우장옷을 빠뜨릴 수 없다. 우장옷은 도롱이, 좁세기 등으로 불리는 제주의 비옷이지만, 용도가 거기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비올 때는 비옷이지만, 추울 때는 방한복이고, 들에서 노숙해야 할 때는 이불이고, 백중 때 마소를 위한 제사를 지낼 때는 돗자리 역할도 하였다. 테우리(목동)들이 장마철에 한라산 중턱에 방목중인 마소를 보러 다닐 때는 이 옷을 입고 정동벌립이나 털벌립을 쓰면 비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시덤불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필수품이었다.

제주의 식생활문화에서 잡곡밥, 범벅류, 국류 등의 음식이 많은 것은 기본적으로 식량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지만, 여러 식재료를 섞어 만드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묘합성의 문화문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읽어도 될 것이다. 또한 식구들이 밥을 먹을 때, 밥은 낭푸니(큰 두레반)에 담아 공동으로 떠먹고 국은 개인별로 사발(작은 그릇)에 떠서 먹었는데 여기서도 공동체주의적 개인주의의 사고와 묘합성의 문화문법을 읽어낼 수 있다. 밭에서 일할 때 점심식사도 대체로 큰 차롱(대나무로 만든 도시락)에 밥을 담아 공동으로 떠먹고 국은 개인별로 하였던 점은 집에서와 같았다. 이러한 점은 육지부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을 차리는 것과는 분명 구별되는 것이다.

제주민가의 내부로 들어가 보자. 한질(큰길)에서 가짓올레를 거쳐 우리집 올레로 접어든다. 한질 밖이 마을공간이라면, 한질과 올레 사이는 동네진입공간이고 완충공간이다. 올레를 걸어 정낭(혹은 이문간)을 넘어서면 마당에 다다른다. 여기까지가 외부공간이다. 안거리로 가보면 섬돌(댓돌)과 낭간이 있고, 그 위에 풍채가 있다. 풍채는 바람과 눈비를 가려주는 가림막이고, 낭간은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완충공간이다. 낭간의 중앙문턱을 넘어서면 주거생활의 중구역할을 하는 상방(거실)이 있고, 배치에 따라 좌우에 큰구들(큰 방)과 정지

(부엌)가 있다. 상방의 끝부분에서 정지로 이어지는 챗방의 마준 편에 고팡(광)이 있다. 집의 크기에 따라 작은구들(작은 방)도 있겠다. 수납공간으로 상방뒷문에 붙여 장방이 있고, 구들에는 벽장이 있다. 상방에서의 난방은 화로(봉덥 혹은 부섶)를 쓰지만, 온돌로 된 구들들에는 난방을 위한 굴묵도 있다. 이것이 안거리의 내부공간이고, 내부공간의 뒤에는 안뒤가 있다. 안뒤까지 이르면 비로소 집안구조가 완결된 공간으로 채워진다. 이러한 집안구조를 떠올리면서 실용적 합리성의 문법에 따라 각종 시설들이 옹기종기 편재된 온정성의 문화문법을 읽어내지 않을 수 없다. 제주민가의 가옥구조는 안거리와 밖거리를 중심으로 정지거리, 장항굽, 쇠막, 통시, 눌왓, 안뒤, 우영밭 등이 옹기종기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주거 공간 역시 묘합성의 문법을 징표하는 것이다.

3. 제주문화문법과 제주정신

제주문화의 패러다임은 평등성, 현세성, 합리성(실용성), 온정성(호혜성), 묘합성(융합성)인 것 같다. 물론 이것들이 제주만의 문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제주정신 연구가들이 주장해온 이른바 ‘제주정신’들도 제주인의 문화문법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 3> 제주문화문법과 제주정신

문화문법	제 주 정 신
평등성	삼무정신, 저항정신, 열등의식
현세성	자연외경, 순박, 수분(守分)의식, 자족, 자조, 자강, 자립, 강인불패, 인내, 절약, 즈냥정신, 이어도정신
합리성	근면, 검소, 실용, 자주, 자율, 정의
온정성 (호혜성)	인정, 신뢰, 수눌음정신, 협동, 상부상조, 자위, 배타심
묘합성 (융합성)	공존, 화목, 평화, 혼저옵서예정신

평등성은 성별, 계급별 등의 구분없이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려는 정신이다. 거지 없고 대문 없고 도둑 없다는 삼무정신은 큰 부자도 너무 가난한 자도 없이 공평하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인들은 평등성의 문법을 깨려는 외부세력에 대해 때로는 저항하려하였고, 때로는 그들의 강함에 열등의식을 가졌을 수도 있다.

현세성은 내세보다는 현세의 삶을 긍정하고 이상향으로 만들어 가려는 정신이다. 제주인들은 자연에 대한 외경심을 가지고 현실적 삶의 처지에 순응하는 순박함과 수분의식을 지녔다. 그러나 척박한 현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자조, 자강, 자립, 강인불패, 인내하고 절약하는 즈냥정신을 가져왔고, 신(神)에 의지하여서라도 기어이 이상적 삶을 현실에 건설하고자 하는 이어도정신을 간직하고 있었다.

합리성은 공정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의 지향의 사고이고 개인주의 정신이다. 척박한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제주인들은 근면하고 검소하며 실용성을 따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또한 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공정하게 삶을 영위하고자 하였다.

온정성(호혜성)은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공동체주의 정신이다. 공동체적 삶은 인정과 상호신뢰에 토대해야 하는 것이다. 온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제주인들은 척박한 삶을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서로 협동하고 상부상조할 수밖에 없었다. 온정과 공동체성이 넘칠수록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자위의식이 강할 것이고, 이를 깨려는 외부세력에 대해서는 배타심과 저항정신을 가질 수도 있다.

묘합성(융합성)은 다양한 문화와 사고를 허용하고 통합시키려는 조화정신이다. 다양한 문화와 사고를 허락하려면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 혼저옵서예정신은 바로 그러한 관용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겠다. 그것은 외부의 이질적 문화를 받아들이고 공존하려는 적극적 태도이다. 여기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화목함이 이루어지고 평화로움도 오는 것이다.

Ⅳ. 맺음말

문화문법을 낳게 하는 조건적 요소들은 시대에 유행하는 결합체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그것은 특정시대의 지배적인 이념과 사상, 생활문화(정치, 경제, 사회 등)양식에 문화적 생리를 낳기도 하고 병리를 가져오기도 한다. 특정시대의 결합체가 문화문법과 결이 맞으면 새로운 문화 창조와 사회발전을 가져오고, 문화문법과 상감(象嵌)하지 못하면 문화적 병리와 사회의 저발전을 가져온다. 이를테면 후자의 측면에서, 평등성의 문법이 평등주의로 추상화될 때 너와 나는 같음과 동시에 다름이라는 사고보다는 너와 나는 같다는 맹목적 열광주의를 낳을 수 있다. 온정성은 유사 가족주의로 흘러 권당의 정치문화라는 폐해를 낳을 수 있다. 현세성은 지금 여기서 내가 출세해야 한다는 한탕주의와 출세주의를 가져온다. 합리성은 이기주의를 낳고, 묘합성은 잡탕과 박물의 문화를 낳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건은 새로운 신태그마의 도전에서 어떻게 긍정의 문화적 생리가 표출할 수 있게 문화적 창조력을 발휘하느냐에 달렸다. 여기서 특정시대의 결합체란 제주도와 도민들이 지향하는 미래발전비전과 전략이라 볼 수도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제주도가 추진해온 국제자유도시 비전과 전략이 제주문화문법과 결이 맞는 것이었는지 반성적 검토가 필요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그동안의 성과로 첨단과학단지,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조성 등을 열거하지만 이것들이 얼마나 새로운 제주문화의 창조와 사회발전을 가져왔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위험성을 지적한 학자들의 주장처럼,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제주에 투기성 금융자본이 판치게 하고, 노동대중의 삶의 파괴를 가져오고, 공동체의 붕괴와 민주주의의 후퇴만을 가져왔

을 뿐이다. 무차별적인 중산간 난개발과 수많은 골프장은 제주의 천연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제주발전은 고사하고 문화적 병리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혀 제주답지 못한 잡탕과 박물의 문화를 낳고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보다는 이기주의, 한탕주의, 출세주의, 배타주의만이 난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개발위주 정책은 멈추지 않고 있다. 오라관광지구개발, 성산 제2공항 등은 목하 가장 첨예한 갈등요소가 되고 있다.

아무래도 필자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제주인의 문화문법과 결이 맞지 않은 신태그마로 여긴다. 그것은 제주의 문화문법에 함의된 가치들과 배치되는 비전이고 전략이다. 그래서 제주정체성의 위기와 문화적 병리, 그리고 제주의 저발전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봉수, 2003,「제주무속신화에 나타난 도덕질서 : 일반신본풀이의 갈등양상을 중심으로」,『제주도연구』24, 제주학회.

_____, 2008,「제주의 효규범에 관한 윤리문화적 접근」,『윤리연구』70호, 한국윤리학회.

_____, 2009,『제주의 윤리문화와 도덕교육』, 누리.

_____, 2014,「제주의 의식주생활에 함의된 윤리적 문화문법」,『윤리연구』99호. 한국윤리학회.

_____, 2015,「제주인의 문화문법 탐색」,『제주대안연구』창간호,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김동욱, 고부자 편, 1977,「의식주」,『한국민속종합보고서 – 제주도편』, 문화공보 문화재관리국.

김두헌, 1949,『조선가족제도연구』, 을유문화사.

김영돈 외, 1983,『제주도민의 삼무정신』, 제주도.

김정기, 김홍식, 1977,「주생활」,『한국민속종합보고서 – 제주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김종업 외, 1979,『탐라정신탐구세미나』,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김항원, 1990,「제주도 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항원, 김진영, 강근형, 고성준, 1996,『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 정립』, 한국방송공사 제주방송총국·제주대학교동아시아연구소.

김형효, 1994,「한국문화의 생리와 병리에 대한 철학적 담론」, 김형효 외 4인 공저,『한국문화의 진단과 21세기』,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혜숙, 1982,「부부간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제주도 농어촌 가정을 중심으로」,『대한가정학회지』20-3, 대한가정학회.

_____, 1983,「제주시 가정의 부부간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농어촌 가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한국가정관리학회지』창간호, 한국가정관리학회.

_____, 1984,「제주도 가족의 고부관계에 관한 연구」,『제주대논문집』(사회과학편) 17, 제주대학교.

_____, 1985,「제주도의 이·재혼 연구」,『제주대논문집』(사회과학편) 20, 제주대학교.

_____, 1993,「제주도 가정의 혼인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 1999,『제주도 가족과 궨당』, 제주대학교출판부.
문무병 외, 2001,『제주도 큰굿자료』,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문정봉, 1994,『풍속무음(상·하)』,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송병언, 1999,「정짓거리 有·無를 중심으로 본 동·서부 제주민가의 차이」,『제주인의 생활문화와 환경』, 제주학회 21주년 제15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송성대, 1996,『제주인의 해민정신』, 제주문화.
송성대, 2001,『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각.
신인철, 1992,『한국의 사회구조: 미분화 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문덕사.
신행철, 1998,「제주인의 정체성과 일본 속의 제주인의 삶」, 신행철 외,『제주사회론 2』, 한울.
양상호, 2014,「제주 주거, 건축문화의 이해」, 제주문화의 인문학이야기 강의자료,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양용진, 2014,「제주의 향토(전통)음식문화」, 제주문화의 인문학이야기 강의자료,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오영주, 1999,「제주 향토음식 문화와 관광 상품화 방안」,『제주인의 생활문화와 환경』, 제주학회 21주년 제15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유철인, 1995,「제주사람들의 문화적 정체감」, 신행철 외,『제주사회론』, 한울아카데미.
윤용택, 2014,「제주 생활문화 의식과 정체성」,『제주 생활문화 100년』, 제주문화원.
이즈미 세이치(김종철 옮김), 2014,『제주도 1935~1965, 일본 문화인류학자의 30년에 걸친 제주도보고서』, 여름언덕.
이창기, 1987,「제주도 가구의 크기」,『탐라문화』 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_____, 1988,「제주도의 가구구성」,『인문연구』 14-1,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_____, 1991,「제주도의 제사분할」,『한국의 사회와 역사』, 일지사.
_____, 1992,「제주도 제사분할의 사례연구」,『민족문화논총』 13,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_____, 1992,「제주도의 사회문화적 특징과 환경 ; 도전·적응·초월의 메커니즘」,『제주도연구』9, 제주도연구회.
_____, 1995,「제주도 가족제도의 특징」, 신행철 외 지음,『제주사회론』, 한울아카데미.
전경수, 1994,『문화의 이해』, 일지사.
정수복, 2007,『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생각의 나무.
강봉수 외 4인 공저, 2018,「제주정체성의 정립 및 교육영역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조성윤, 1998,「제주인의 문화정체성」, 신행철 외,『제주사회론 2』, 한울.
진성기, 1991,『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최재석, 1976,「제주도의 장남가족」,『아세아연구』19-2, 아세아문제연구소.
_____, 1977,「제주도의 부락내혼과 친족조직」,『인문논집』23, 고려대학교.
_____, 1977,「제주도의 이·재혼제도와 비유교의 전통」,『진단학보』43, 진단학회.
_____, 1978,「제주도의 조상제사와 친족구조」,『행동과학연구』3.
_____, 1978,「제주도의 첩제도」,『아세아여성연구』17, 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_____, 1978,「제주도의 양자제도」,『인문논집』23, 고려대학교.
_____, 1979,『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_____, 1983,『한국가족제도사연구』, 일지사.
한삼인, 1999,「제주지역의 가족관습」,『판례연구』2호, 제주판례연구회.
현용준, 1973,「가족」,『제주도 문화재 및 유물종합조사보고서』, 제주도.
_____, 1980,『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_____, 1986,『濟州島巫俗硏究』, 集文堂.
_____, 1992,『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현진숙, 2014,「제주옷의 특성」, 제주문화의 인문학이야기 강의자료,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황혜성, 1977,「식생활」,『한국민속종합보고서 – 제주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Cliford Geertz,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New York: Basic Books.

Abstract

Jeju Identity as a 'Jeju Spirit' for Research Results and Jeju Cultural Grammar

Kang, Bong-Soo*

This article reviews the research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Jeju spirit' and suggests the concept of culture grammar as a basis for reestablishing Jeju identity. Previous studies have suggested 'diligence spirit', diligence and self-preservation spirit, self-reliance and self-esteem, the spirit of unbreakable. Although negative points indicated exclusiveness and inferiority consciousness, previous researches generally have limitations that emphasize positive spirit. There was also a spirit set in the level of consciousness reform movement much like the spirit of Sammu(三無) and Seamanship(海民). The main drawback of the previous study is that even if the 'Jeju spirit' was revealed, it could not be regarded as a culture grammar of Jeju people working in the cultural depths.These are largely conscious phenomena found in certain cultural behaviors. Cultural grammar works on a deeper level than cultural behavior or consciousness. We have to find it, and that is the foundation of identity. The author suggested equality, temporality, rationality (practicality), benevolence, and convergence in the Jeju cultural

* Professor,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grammar, and the 'Jeju spirit' found in previous studies was formed based on this cultural grammar saw.

Keywords : Jeju identity, Jeju spirit, Jeju cultural grammar

교신 : 강봉수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E-Mail: bingwoo@jejunu.ac.kr)

논문투고일 : 2018. 07. 18
심사완료일 : 2018. 08. 02
게재확정일 : 2018. 08. 06